



인민의 군대와 군복입은 깡패무리

지금 조선반도의 북과 남 두 군대의 모습은 너무도 판이하다.

공화국에서는 군대가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보위하면서 인민의 생명안전을 지키고 행복을 꽃피워가는 참다운 인민의 북부자로 찬양받았지만 남조선군대는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고 도덕의식이 마멸된 부패타락한 깡패집단으로 저주와 규탄을 받고있다.

얼마전 공화국의 수도 평양에서는 눈물없는 불수 없는 감명깊은 화폭이 펼쳐졌다. 자정도 훨씬 넘은 이른 새벽에 군대와 인민이 한데 어울려 눈물속에 작별하는 모습이였다.

이들은 지난 90여일간 수도 시민들의 생명안전을 지켜싸우고도 인민들에게 자그마한 부담이라도 줄세라 조용히 귀로에 오른 군의부문의 화선군들의과 그들이 떠난다는것을 알고 굶기야 달려나온 인민들이였다.

돌발적인 악성비루스사태가 조성되었던 그날에 자기들의 고귀한 피와 땀을 바쳐 인민을 지켜준 고마운 군대. 자기들에게 필요되는것은 물과 공기뿐이라고 하면서 인민들의 성의어린 환호속에 받치던 그 군인들이 무수한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들만을 약국들에 고이 남겨둔채 떠나가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 인민들은 친혈육처럼 정이 든 남군들의 손을 놓지 못하고 뜨거운 눈물만 흘리였다.

공화국에서 군대는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무적의 강군, 행복의 창조자들이다.

어느 나라에서나 군대가 최대의 소비자로 되고있고 인민의 군비와 세금을 들고 나라가 군비충당에 최진해지고있고 아우성치는것이 오늘날 행성의 현실이다.

그러나 공화국군대는 소비하는 군대가 아니라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다 말하는 구호를 들고 창조하는 군대, 복무하는 군대, 희생하는 군대로 되고있다.

인민들이 얼마전 어깨춤을 들썩이며 삶의 편 송화지구와 경주동의 회한한 새 살림집들도 인민군대가 일떠세웠고 지난 시기 이 땅에 우후죽순처럼 솟아난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마다에도 인민군대의 무수한 땀방울이 스며여있다.

지금 이 시각도 인민군 군인들은 화성전역과 온 나라 도처의 주요 건설전투마다에서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기 위하여 낮과 밤이 따로 없는 전투를 벌리면서 기적의 건설신화를 창조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의 인민들은 인민군대를 《우리 군대》, 《행복의 창조자》라고 사랑과 존경을 담아 부른다.

공화국의 인민군대가 이렇듯 진정한 인민의 군대로 복무하는 친혈육처럼 정이 든 남조선에서는 인민들에게 불행과

고통만을 들씌우고 그 도덕과 정신이 기형화된 판이한 군대가 살판치고있다.

군대가 주민지대들에 뛰어들어 폭행을 일삼고 무고한 주민을 살해하고는 차를 타고 뺏고 나서는 범죄행위가 감행되고있는가 하면 길가던 처녀들을 회롱하며 깡패처럼 놀아대고있다. 또한 군사편환을 핑계로 방금 모를 낸 밭이건, 이삭이 여물어가는 땅이건 가림없이 장갑차와 탱크로 짓밟아버려 농민들의 원성도 사고있는 남조선군대이다.

이뿐이 아니다.

찍하면 주민들에게 무기를 휘두르며 행패질하고 주민을 살해하고는 실수로 판사되었다고 사실을 오도하여 사회적인 불안과 공포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얼마전 남조선군대내에서 또 다시 발생한 추악한 성추행사건과 자살사건은 마블필대로 마블된 남조선군의 정신도덕적부패상태를 여지없이 드러내보였다.

규율과 도덕을 생명으로 하는것이 군대이지만 남조선군은 폭행과 강간 등 범죄행위를 일삼는 군복입은 깡패집단이다.

하사관이 사병에게 개처럼 짓을것을 강요하는가 하면 그런 비인간적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하여 구라와 집단폭행을 가하고 살해까지 하는 만행이 빚어지고있다.

그 고통과 수치를 견디지 못해 군대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도 꼬리를 물고 일어 나고있다. 지난해만 놓고보아



남조선에선... 이예람중사 시민분양



군대에 떠도는 폭행의 민형들

수기 사회주의조국의 따사로운 물에 안겨

뜻깊은 공화국창건기념일이 하루하루 다가오는 요즘 나는 내 안겨사는 은혜로운 사회주의조국의 물이 얼마나 따사로운것인가를 더욱 뜨겁게 절감하고있다.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사회주의사회와 절망과 비애가 가득한 자본주의사회, 광명과 암흑의 두 세계를 다 체험해본 내 심정은 참으로 류다르다.

행복의 절정에 올라 추억의 폐지를 번질 때마다 나는 자본주의일본땅에서 우리 가정의 걸은 수년에 찬 과거를 돌이켜보곤 한다.

나라없던 그 시절 나의 아버지는 정용으로 일본땅 쪽가이도에 끌려가 매일같이 굶고 죽음의 계산을 넘나들었다. 강보리밥으로 끼니를 에우며 오소리굴같은 갯에 거여들어가 등짐으로 탄을 날라내오는 일은 그야말로 고역중의 고역이었다. 그날 일본감독놈들의 모진 폭행으로 아버지는 한쪽눈까지 잃게 되었다.

이처럼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축구를 하고싶었지만 황금만능의 자본주의사회에서 나와 같이 생계유지도 힘든 집의 자식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이룰수 없는 꿈에 지나지 않았다.

그래도 축구에 대한 동경심을 누를길 없어 주린 배를 그리안고 일본아이들이 뽀짝하는 모습을 민발지에서 하루종일 지켜보곤 하였다. 가난한 집살림에 축구공 하나의 값은 너무 엄청난것이어서 차

마 사달라고 부모앞에 손을 내밀수도 없었다.

누군가 차다버린 낡은 공을 주었을 때의 심정은 마치 저 하늘의 별이라도 탄것같은 심정이었다. 밤새 터지고 켜진 곳을 기우고 매일 공다루기훈련을 직접스럽게 하였다. 밤낮없이 맹훈련을 한 결과 일본아이들도 힘들어하는 공다루기 1000회수준에 오르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날 나는 《반도간》인 주제에 저들보다 재간이 있다고 트집을 걸며 달려드는 섬나라 망나니들에게서 못매를 맞았다. 정말이지 해가 비쳐도 따사로운물을 볼랐고 꿈같이 만발하여도 환희로움을 느낄수 없었던 비참한 기억이었다.

사회주의조국으로의 귀국의 배길은 이역땅에서 갖은 민족적멸망과 천대를 받으며 살아온 나에게 새 생활을 안겨준 광명의 길이었다.

조국땅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나는 조국인민들의 따듯한 눈빛과 목소리에서 활력의 정을 한껏 느끼었다. 주위의 모든것 지어 공기마저 얼음처럼 램랭한 일본땅에서 살던 내에게 있어서 조국의 현실이 정말 놀라웠다.

말은 총련사업이 바빠 아들들만을 조국으로 먼저 떠나보내면서 아버지가 하던 말이 생각났다.

《홀로 조국에 간다고 겁 겁해하지 말아라. 사회주의조국땅에서는 모두가 한집안, 한식솔이란다.》

정말로 그랬다. 조국인민들



권이 지배하는 일본과 같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일찌기 꿈과 희망의 노래를 꺾어주고 좌절과 절망에 몰부딪히고있다.

독자문답 제카나동토 김유라선생이 제기한 질문

공화국에서 인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어떤 혜택을 베풀어주고있는가

공화국에서는 전반적무로 교육제와 무상치료제, 유급휴가, 정휴양제, 탁아소, 유치원의 운영, 각종 보조금 및 현금지불제를 비롯한 우월한 사회주의적책들이 널리 실시되고있다.

전반적무로교육제에 의해 출생한 어린이 한명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국가가 부담하는 교육양육비와 교육비, 전반적무상치료제에 의해 인구 한사람이 받는 국가적혜택은 실로 막대한 것이라 하지 않을수 없다.

또한 식기공급 등 연료, 난방, 전기보장 등 인민들의 생활과 관련된 모든 조

건들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장해주고있다.

공화국에서 국가가 많은 품을 들여 지은 살림집들을 인민들에게 무상으로 배정해주고있는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인민적지책들은 사회문화시책 비에 의해 재정적으로 담보되고있다.

국가는 국가예산가운데서 사회보장제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몫을 계획적으로 형성하여 사회보장대상자들에게 현금 및 현금지불에 의한 방조를 주고있다.

특히 공화국에서는 세쌍둥이, 네쌍둥이를 낳아키우는

우리 민족이 창조한 유산들 가운데는 민족고유의 전통의 확고한 고려의학도 있다. 우리 조국에서는 오랜 력사와 훌륭한 전통을 가지고있는 고려의학이 민족의 귀중한 유산으로 적극 장려되고있다.

나는 오래전부터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하였다. 병을 고쳐보려 고가약들도 써보고 병원들도 많이 찾아다녔지만 그대뿐이고 차도가 없어 아예 포기했다.

하지만 그 병을 조국에 와서 깨끗이 털어버릴줄 어찌 알았겠는가.

몇해전 조국에서는 내가 오래동안 병으로 고통을 받고있다는것을 알고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해주었다.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는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고려치료방법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고려의학을 적극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사업도 진행되고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나는 조국의 고려의학발전수준을 직접 체험할수 있었다. 조국에서 고려의학이 얼마

나 장려되고있는가 하는것은 그 어디에 가나 훌륭한 고려의료봉사자들이 꾸려져있고 중앙으로부터 도, 시, 군(구역), 리의 병원은 물론 공장, 기업소의 산업병원과 진료소들에 이르기까지 정연한 고려의학사체계가 세워져있을뿐 아니라 고려의학의 과학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

우리의 고려의학이 제일이다

되고있는것을 봐도 잘 알수 있었다.

나는 고려의학종합병원에서 새로 개발하였다는 3세대 고려의학교전의 하나인 《향약집성방》열람프로그램을 보고 충격을 받았었다.

이것은 로일군들은 민족의 전통의학을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향약집성방》에 기초하여 치료사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달라붙었는데 《향약집성방》의 959개 고려의학적 병증에 해당하는 1만 3 300여 개의 치료법들을 병증, 고려약처방, 침뜸치료, 민간로법, 식사요법, 침혈 등 필요한 항목에 따라 검색열람할수 있게 하였다.

《향약집성방》의 열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국민의 고려의학자원에 의거하여 효능높은 치료법들과 건강약품을 더 많이, 더 빨리 개발할수 있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제28차 전국정보기술발전대회에서 1등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목에 따라 검색열람할수 있게 하였다.

《향약집성방》의 열람을 편리하게 해주고 국민의 고려의학자원에 의거하여 효능높은 치료법들과 건강약품을 더 많이, 더 빨리 개발할수 있게 하는 이 프로그램이 제28차 전국정보기술발전대회에서 1등을 하였다는 말을 듣고

다들 물어볼수 없을 환자들의 체질적특성에 맞는 고려약의 처방과 치료를 위해 바쳐왔을 이곳의 로일군들의 수고가 깊이 헤아려졌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여러 가지 원인으로 더욱 많아지고있는 질병들을 고려의학방법으로 치료할 높은 목표를 세우고 지혜와 정성을 바쳐가고있는 이곳 의료일군들을 보면서 조국에서의 고려의학발전의 밝은 앞날을 내다볼수 있었다.

내가 오래동안 고통하면서도 고치지 못했던 병을 조국에서 깨끗이 털어버리고 돌아오자 동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해하였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행운이라고 부러워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이렇게 말해주곤 한다.

《나의 운수가 좋아서가 아니라 당당한 내 조국이 있고 조국에서 적극 장려하는 고려의학이 있었기에 병을 고칠수 있었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 민족의 고려의학이 제일이다.》

재중동포 한 장수



고려의학종합병원

《복받은 삶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부럽다》

공화국을 방문하였던 외국인들은 조선의 사회주의사회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인민의 이상사회라고 하면서 감탄과 부러움을 금치 못하고있다.

네팔자력갱생연구회대표단 단장은 종합적인 치료봉사 기지로 훌륭히 일떠선 류경치과병원을 돌아보고 격정에 넘쳐 이렇게 말하였다.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이런 최상급의 병원에 돈많은 사람들이나 몰수 있다.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보건제도의 혜택속에 복받은 삶을 누리는 조선인민이 정말 부럽다.》

영국조선친선협회는 지구상에서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뿐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긴급정책과 공공부문 예산삭감에 따라되고있지만 조선에서는 교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확대하고있다. 전반적12년제의무교육의 실시는 조선의 어린이들에게 자기의 재능을 더욱 활짝 꽃피울수 있는 보다 훌륭한 조건을 마련해줄것이다. 이렇게 대담하고 혁신적인 조치는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완벽하게 지니신 존경하는 김정은각하의 평등도를 받는 조선에서만 취해줄수 있다.》

한 재미동포는 《내가 본 평양》이라는 글에서 자기의

본사기자